

# 바람직한 검찰 역할상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Role of Desirable Prosecutors' Office

이 정 주(Lee, Chung-joo)\*\*

### ABSTRACT

Previous discussions about prosecutors reform are led by politicians and legal experts. As a result, there is not reflected national recognition in prosecutors reform. In this study, under such a recognition, I proposed 5 types on role of desirable prosecutors' Office by Q Methodology.

Especially most respondents recognized 1 type(pursuit of independence from political power and authorization checks). The result means there is a considerable persuasive power about prosecution reform(ex. abolition of central investigation department and establishment of special inspection department and permanent special prosecutor)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maining four types, I find that public service functions such as fair enforcement of the law, transparent administration, national security etc. are as important as 1 type(pursuit of independence from political power and authorization checks)

Finally, because integrity in 5 types which are perceived differently is revealed to the common element, ensuring the integrity of the prosecution itself was found to be more important than ever.

Key words: Prosecutors reform, Q Methodology, Corruption, Integrity

## 1. 서론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의는 새로운 정책 어젠다는 아닐 것이다. 과거 역대 정부인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등에서도 줄기차게 논의가 되었으며, 최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검찰개혁이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될 만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시사IN이 세 차례(2009년 8월, 2010년 9월, 2012년 10월)에 걸쳐 실시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권력기관인 청와대, 국회,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보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시사인, 2012.10.23자)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의는 기존 반부패정책의 논의와 유사한 흐름을 지닌다. 지난 10년 전의 반부패로드맵에 의한 정책과제나 오늘날의 반부패로드맵에 의한 정책과제가 큰 흐름상으로 거의 대동소이한 측면이 있듯이 검찰개혁도 과거 검찰발전의 장

\* 본 논문은 2013년 한국부패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연구위원/경희대학교 겸임교수.

요소로 지적받은 사항이 현재까지도 존재한다. 그리고 반부패·청렴을 위해 어떠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지만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않듯이 검찰개혁도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화두라 할 수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권력 남용방지 등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이해관계, 조직 내·외부적 관계, 법률적 관점 등에 의해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으로 지금까지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의<sup>1)</sup>가 주로 법조계나 정치인의 입장에 의해 주도되어 국민적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에 주안점을 두어 논의토록 한다.

즉 정치인이 바라보는 검찰개혁, 법조인과 같이 전문가가 바라보는 검찰개혁, 일반국민이 바라보는 검찰개혁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지나치게 전문가나 정치인의 시각에 치중해서 접근했다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개혁이라 할지라도 주인인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타협이나 기득권의 저항에 의해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은 정해진 명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관점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의 올바른 역할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검찰개혁의 수용성을 높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인의 주관성을 객관화하여 유형화하는데 용이한 Q방법론을 활용해 보도록 한다. 이러한 인식유형분류를 통해 검찰개혁에 있어 국민들이 바라는 방식과 기존 정치권이나 전문가가 논의하는 방식 간에 공통점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검찰개혁에 있어 국민들이 바라는 다른 역할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검찰의 바람직한 역할상으로 분류된 서로 다른 유형 간에 공감의 정도가 높은 요소를 토대로 검찰개혁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도록 한다.

이 연구는 기존 정치인이나 법률 전문가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검찰개혁을 논의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여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한 첫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1) 검찰개혁의 어젠다(agenda) 속성상 주로 법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거나 대다수 국민생활과의 직접적인 연계성 부족으로 대중적인 관심도가 떨어질 개연성이 높은 속성을 담고 있다.

## II. 검찰개혁 논의의 새로운 시도: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검찰상

### 1. 검찰개혁 왜 해야 하는가?

#### 1) 검찰을 둘러싼 환경변화

##### (1) 거버넌스 확대

오늘날 국정운영 방식은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과거 환경변화가 거의 없던 전통사회에서는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지만 오늘날 정보화, 세계화, 개방화로 변화무쌍한 환경변화 속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들의 협조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기관 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이 범죄수사를 위해서 경찰, 국세청, 법무부 등과의 공조가 필요한 점에서 범죄정보를 전적으로 독점하여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배심제 도입이나 재정신청제도 등도 거버넌스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검찰에서도 주어진 권력을 기관의 전유물이라는 시각을 버리고 사회의 모든 주체들과 함께 공조해야 한다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여러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검찰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2) 부정부패척결

청렴이 국가경쟁력의 핵심가치라 할 만큼 부정부패척결은 어떠한 정권이든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할 과제일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하는 국가청렴도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의 경우 지난 2009년 이후 하락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가청렴도가 낮은 원인으로는 대통령의 측근비리, 인사청문회나 사면 등에서의 탈법과 부패에 대한 묵인, 그리고 검사 스폰스 사건 등과 대련된 사회지도층과 관련된 비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부정부패척결이 검찰의 역할인 만큼 검찰 내의 조직구성원의 비리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저해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검찰과 관련된 정책불신으로 대내적인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부정부패척결

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3) 인권존중

민주화 이후 인권은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핵심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인권이란 말 그대로 인간이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떠한 원리보다 우선시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IMF 이후 신자유주의로 행정의 효율성의 가치가 우선시 되면서 절차보다 결과가 상대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절차적 민주주의가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성과주의를 강조하다 보니 실적을 위한 무리한 수사나 조사로 국민의 인권이 무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검찰은 수사를 위한 인권보호수사준칙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권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권력기관인 검찰의 인권보호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다소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으며, 검찰내부에서도 조직문화차원에서 수사, 공소제기 등을 행할 시 인권보호조치가 자연스럽게 내재화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 (4) 투명성 요구 증대

일각에서는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자체적인 개혁이 힘들기 때문에 외부통제 방식에 의해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이는 곧 검찰의 내부적 자정능력이 없다는 판단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검찰에서 아무리 국민에게 좋은 정책을 내놓더라도 그 진의가 왜곡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매우 큰 위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검찰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독점이 상대적으로 강한 검찰업무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급선무라 할 것이다.

투명성의 가치는 현 우리나라의 복지확대와 맞물려 향후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를 하려면 재원이 많이 필요하며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대해 투명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흐를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정부조직법상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타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업무에 대한 공개의 원칙 즉 투명한 행정을 철저히 수행하여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sup>2)</sup>.

## 2) 검찰관련 인식도 조사

2012년 시사IN의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시사인, 2012년 10월 23자)에서 권력기관 중 국세청이 10점 만점 중 4.78점으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감사원 4.70점, 경찰 4.50점, 국정원 4.28점, 검찰 4.00점 순으로 검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두 차례 걸쳐 실시된 2009년도 8월, 2010년도 9월 조사에 이어 검찰이 가장 불신 받는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검찰의 신뢰회복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서 검찰의 불신 이유로 검찰의 보은성 인사, 수사 형평성 논란, 집권층 눈치보기, 검사 스폰스 사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법무부가 여론조사기관(2009년 11~12월 조사)을 통해 검찰이 공정성을 잃은 이유(복수응답)를 파악한 결과(경향신문, 2011.9.28자), 조사대상자인 일반인 1000명 중 53%가 '권력과 돈, 피의자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불평등한 수사'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그 다음 순으로, '정권에 편파적인 수사(26%)', '국민의 정의나 상식에 상반된 수사결과(25%)', '상명 하복식 조직문화(18%)'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시민의 17%만 검찰을 신뢰한다고 했는데 이는 조사 대상 13개 공공기관 중 검찰의 신뢰는 10위에 해당될 만큼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관 중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일반시민(복수응답)들기관 중 대해 공정하고(8명), 독립적(9명)이고, 정의(6명)롭고, 친근(1명)하을 신이미지보다 권위적(53명), 특권적(43명), 보수적(25명), 고압적(24명), 위계적(15명), 부패적(16명)이라는 이미지를 더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정부패척결이 검찰의 주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 등급을 기록함에 따라 청렴하지 못한 검찰로 평가받고 있다(법률신문, 2013. 4. 1). 그러한 이유로 검찰 내부적으로 청렴하다고 보고 있지만, 외부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와 학회, 출입기자, 국회 보좌관 등으로 이루어진 정책고객평가에서 타 기관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즉 고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비록 일부 검사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검사스폰스 사건, 그랜저 검사 사건 등을 통해 청렴하지 못한 검찰의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에 대한 외부평가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으며 개혁을 해야만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검찰개혁 관련 선행연구 검토

검찰은 대외적으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부정

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http://www.opengirok.or.kr/3246>)에 의하면 대검찰청의 2011년도 연구용역현황을 보면 총 53건 중 11건만 공개되었으며, 이 중 검찰의 신뢰도와 청렴도 등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모두 비공개됨으로써 열린 검찰을 표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패를 척결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인권을 보호하며, 피해를 구제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아야 하며 대내적으로는 법집행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담보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과 능력을 갖춘 법집행기관일 것이다(하태훈, 2009; 대검찰청 홈페이지)<sup>3)</sup>.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지난 10년간 2001년 10월 법무부의 검찰개혁방안을 시점으로, 2003년 2월, 2010년 6월에 발표된 대검찰청의 검찰개혁방안 등을 통해 검찰인사제도의 개혁, 기소독점주의 완화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부분적 통제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개혁이 우리사회의 정·관·경유착을 통한 대규모의 부패와 비리를 공정하면서 객관적으로 처리하는데 다소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윤영철, 2011). 최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검중수부 폐지, 상설특검 설치 등과 같은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그러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검찰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서보학(2010)은 권한의 독점으로 인한 검찰권력의 과잉화, 검찰권력을 통제할 견제수단의 부재, 권력지향의 검사와 정치적 종속성, 대검중수부의 정치권력화, 일사 분란한 조직체계와 상명하복의 문화, 폐쇄적 엘리트주의, 검사에 장악된 법무부, 인권침해, 공익에 대한 부적절한 대표성 등을 들고 있다. 김용훈(2012)은 정검유착에 따른 검찰의 권력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 주장했으며, 김인회(2010)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권의 본질이 사법권이 아니라 행정권이라는 인식하에 권력의 견제와 분산원칙이 검찰개혁의 주요 방향이라고 파악했다. 이외에도 김영대(2007)는 검찰의 업무관행이 처리해야 할 사건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건의 양을 줄이는데 주력한 양 중심의 경영으로 사건처리의 질 관리의 미흡과 폐쇄적인 조직문화 및 관리체계로 검찰조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에 따라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문제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결국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서보학, 2010), 검찰이 인권보호나 공익의 수호자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충실히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검찰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권 폐지’, ‘검사의 단독판청으로서의 지위회복’, ‘법무부와 검찰청의 분리’, ‘인사시스템의 개혁(검찰총장의 임명절

3) 검찰을 상징하는 CI는 대나무의 울곧음에서 모티브를 차용하고 직선을 병렬 배치하여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이미지를 담고 있다. 상단의 곡선으로 천칭저울의 받침 부분을, 중앙의 직선으로 칼을 형상화하여 균형있고 공평한 사고와 냉철한 판단을 표현하고 있다. 다섯개의 직선은 정의, 진실, 인권, 공정, 청렴을 뜻하며, 주색조인 청색은 합리성과 이성을 상징하며, 좌측으로 부터 각 직선은 공정, 진실, 정의, 인권, 청렴을 상징하며 중앙에 칼의 형상인 정의가, 그 좌우에 각각 진실과 인권이, 다시 그 좌우에 공정성과 청렴이 있는 형태이다(대검찰청, [http://www.spo.go.kr/spo/intro/cicm/cl\\_cm.jsp](http://www.spo.go.kr/spo/intro/cicm/cl_cm.jsp) 검찰CI)

차 재검토)', '대검중수부 및 공안부 폐지', '검사동일체원칙의 개혁' 등을 들 수 있으며, 검찰권력의 견제차원에서 '기소권의 견제를 위한 재정신청사건의 전면확대', '공정하고 엄정한 외부감찰 시스템의 마련', '수사권의 분점', '공직자비리조사처의 도입', '시민참여(기소배심제)를 통한 검찰권한 견제', '감사원 권한 활용을 통한 검찰통제', 인권보호나 공익의 수호자로서 '공적변호인 제도' 등을 들 수 있다(윤영철, 2011; 서보학, 2010; 김용훈; 2012; 김인회, 2010; 한상훈, 2009).

<표 1> 검찰개혁에 대한 기존 논의

학자	검찰개혁의 필요성	해결방안
윤영철(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이 정·관·경유착을 통한 대규모의 부패와 비리를 공정하면서 객관적으로 처리하는데 다소 역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권 폐지</li> <li>◦ 검사의 단독관청으로서의 지위회복</li> <li>◦ 법무부와 검찰청의 분리</li> <li>◦ 인사시스템의 개혁(검찰총장의 임명절차 재검토)</li> <li>◦ 대검중수부 및 공안부 폐지</li> <li>◦ 검사동일체원칙의 개혁</li> <li>◦ 검찰권력의 견제차원에서 기소권의 견제를 위한 재정신청사건의 전면확대</li> <li>◦ 공정하고 엄정한 외부감찰 시스템의 마련</li> <li>◦ 수사권의 분점</li> <li>◦ 공직자비리조사처의 도입</li> <li>◦ 시민참여(기소배심제)를 통한 검찰권한 견제</li> <li>◦ 감사원 권한 활용을 통한 검찰통제</li> <li>◦ 인권보호나 공익의 수호자로서 공적변호인 제도 등</li> </ul>
서보학(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한의 독점으로 인한 검찰권력의 과잉화</li> <li>◦ 검찰권력을 통제할 견제수단의 부재</li> <li>◦ 권력지향의 검사와 정치적 종속성</li> <li>◦ 대검중수부의 정치권력화</li> <li>◦ 일사분란한 조직체계와 상명하복의 문화</li> <li>◦ 폐쇄적 엘리트주의</li> <li>◦ 검사에 장악된 법무부</li> <li>◦ 인권침해</li> <li>◦ 공익에 대한 부적절한 대표성</li> </ul>	
김용훈(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검유착에 따른 검찰의 권력화</li> </ul>	
김인회(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의 정치적 종속성</li> </ul>	
김영대(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 중심의 경영으로 사건처리의 질 관리의 미흡과 폐쇄적인 조직문화 및 관리체계</li> </ul>	

이러한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제시에도 불구하고 매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검찰개혁이 논의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검찰개혁 논의가 학계나 정치권, 검찰의 입장으로 이루어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기존 정치권이나 전문가가 논의하는 방식과 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권력남용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수행하는 다른 역할, 즉 대국민서비스 기능에 대해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찰개혁 시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검찰의 역할상이 무엇인지를 Q방법론을 통해 나타난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국민이 보다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의 전략적 방향성에 대해 모색해 보도록 한다. 특히 검찰의 바람직한 역할상에 대한 유형들 간 공통점을 보이는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 III. 연구조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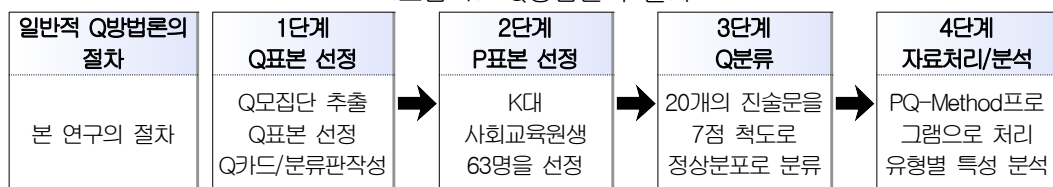
#### 1. Q 방법론의 의의

Q 방법론은 인간에 관한 연구에 일련의 철학, 심리학, 통계학 및 심리측정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객관주의 과학에서 대부분 무시되고 있는 주관성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기 위해 개발된 과학적 절차라고 정의하고 있다(Stephenson, 1953; 이정주·이선중, 2013).

이외에도 Mckewon & Thomas(1988)는 Q방법론을 상관관계와 요인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인간의 주관성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수량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심리측정학적 조작적 원리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들을 고려해 본다면 Q방법론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개인의 선호, 가치, 태도 등을 밝히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검찰의 유형을 밝히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Q방법론의 일반적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진행된다. Q방법론은 Q표본 선정, P표본 선정, Q분류, 자료처리 및 분석의 단계를 거치게 되며 본 연구도 Q방법론의 일반적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1> Q방법론의 절차





## 2. Q 표본의 구축 및 P표본 선정

Q 모집단은 검찰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이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가치, 규범, 태도 등이 무엇인지를 앞서 제시된 검찰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검찰관련 인식조사, 검찰개혁 관련 선행연구, 대검찰청에서 제시된 검찰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Q모집단으로부터 Q표본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자가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을 삭제하고, 유사한 항목은 통합시키는 작업을 통해 내면심리나 주관적 가치만을 표현한 20개의 진술문을 Q 표본으로 선정하였다<sup>4)</sup>. 20개의 진술문은 검찰 내부의 개혁에 초점을 맞춘 7개 문항과 외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검찰개혁 관련 13개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표 2> 바람직한 검찰상에 대한 Q 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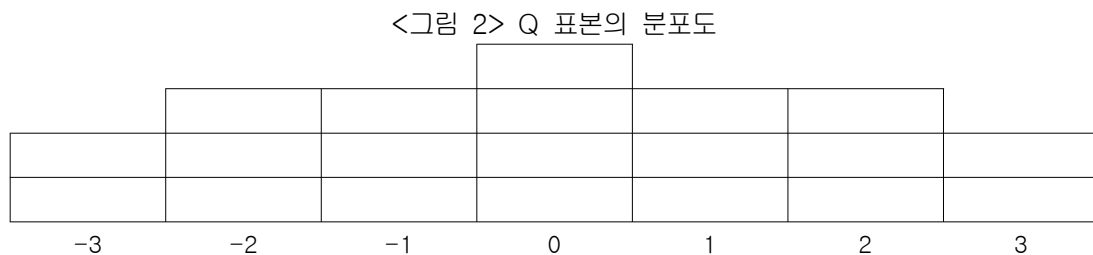
올바른 검찰상		
검찰개혁차원	대내적인 측면	대외적인 측면
1. 검찰은 청렴해야 한다.	○	
2. 검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
3.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견제되어야 한다.		○
4. 검찰은 어떠한 공공기관 보다 법을 잘 준수해야 한다.	○	
5. 검찰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
6. 검찰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해야 한다.		○
7. 검찰은 부당한 지시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명하복방식의 조직구조는 개선해야 한다.	○	
8. 검찰은 국민에게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
9. 검찰은 범죄피해자의 회복까지 지원해야 한다.		○
10. 검찰은 투명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	
11.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
12. 검찰은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13. 검찰은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어린이, 노약자, 여성)보호 함으로써 사회정의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
14. 검찰은 시민사회로부터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		○
15. 검찰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	
16. 검찰은 법 집행시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
17. 검찰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
18. 검찰은 특권적 지위를 향유해서는 안된다.	○	
19. 검찰은 사회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
20. 검찰은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

4) 특히 청렴, 투명, 공정, 책임성 강화, 정치세력으로서의 독립,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와 견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P 표본구성은 Q표본으로 작성된 조사표의 응답자를 선정하는 단계로 K대 사회교육원생 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sup>5)</sup>. 이들의 경우 직업이나 연령이 다양하여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데 용이한 집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Q 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 내의 인식의 중요성 차이를 다루기 때문에 P표본의 크기에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김흥규, 2008), 대부분의 Q 방법론에서 연구 참여자의 수가 40~60여명 정도를 감안하여 선정하였다(김현수·원유미, 2000; 이정주·이선중, 2013).

### 3. Q분류 및 자료처리

Q 분류라 함은 조사참여자가 Q 진술문 카드를 Q 분포도 위에 배열하는 것으로, 분류의 방식으로는 응답자가 Q 진술문을 읽은 후 가장 동의하는 항목(+3)에서 가장 동의하지 않는 항목(-3)까지 분류하도록 하였다.



체계적인 응답분류를 위해 응답자에게 동의하는 입장(+), 중립적인 입장(0), 동의하지 않는 입장(-)의 3그룹으로 분류한 후, 그룹별로 다시 각각 동의하는 항목과 동의하지 않는 항목에 따라 재분류한 이후 최종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 후 카드 번호를 Q 분포도에 기입토록 하였다. 응답자의 Q 분류 소요시간은 대략 20여분이 소요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Q 방법론 연구를 위해 고안된 PQMethod 2.1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요인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과 배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을 이용하여 Q-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바람직한 검찰상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아이겐 값(eigen value) 1.0이상을 기준으로 3, 4, 5, 6 등 다양하게 입력한 결과 요인의 설명력의 크기나 상관관계, 각 유형의 고유성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된 요인의 수를 5개로 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가 사회문제에 대한 찬반과 관련된 쟁점사항이 아

5) 총 조사 대상자 63명은 성별을 기준으로 남성 36명(57.1%), 여성 27명(42.9%)으로, 연령별로는 20대 17명(27.0%), 30대 18명(28.6%), 40대 17명(27.0%), 50대 11명(17.5%)으로 구성되었다. 업무종사분야로 공무원 21명(33.3%), 금융권 10명(15.9%), 일반회사 15명(23.8%), 자영업 7명(11.1%), 기타 10명(15.9%)로 구성되었다.

닌 관계로 여러 차례의 요인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유형 간 명확한 차이를 찾기 힘든 부분이 있어 인식유형의 설명력의 크기가 60%이상이면서 요인별 특성을 상대적으로 차별화하기 쉬운 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했다.

## IV. 결과의 해석 및 논의

### 1. 인식유형

바람직한 검찰상에 해당되는 5개의 유형은 총 62%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로 설명력을 보면 제1유형 22%, 제2유형 11%, 제3유형 8%, 제4유형 14%, 제5유형 7%였다(<표 3> 참고). 그리고 연구 대상자 63명 중 5가지 요인에 해당되지 못한 13명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제1유형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제4유형 12명, 제2유형 8명, 제3유형 6명, 제5유형 4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P 표본의 인식유형별 요인가중치

유형(n=50)	아이겐값	변량(총 62%)	ID	인자가중치
제1유형 (n=20)	18.4420	22	1	0.6975
			2	0.5295
			4	0.6467
			9	0.5307
			16	0.9263
			18	0.8443
			23	0.7581
			26	0.5386
			29	0.6237
			34	0.8599
			36	0.6305
			42	0.7343
			43	0.6726
			50	0.6332
			52	0.7490
			53	0.7422
			54	0.7252
			55	0.7759
			62	0.6654
			63	0.6229

제2유형 (n=8)	7.9139	11	3	0.6344
			11	0.5980
			19	0.7289
			20	0.5500
			41	0.6417
			56	0.8241
			57	0.6868
			60	0.7539
제3유형 (n=6)	4.6635	8	7	0.7828
			14	0.5746
			21	0.5379
			28	0.6423
			39	0.4908
			45	0.7392
제4유형 (n=12)	4.3620	14	8	0.4731
			10	0.4439
			31	0.6383
			33	0.7882
			37	0.6476
			40	0.6253
			44	0.6777
			47	0.7228
			48	0.6083
			49	0.8066
			59	0.4972
			61	0.7551
제5유형 (n=4)	3.4780	7	12	0.7472
			22	0.5095
			27	0.7254
			58	0.6169

## 2. 인식유형별 특성

### 1) 제1유형: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및 권한견제 추구형

Q분석을 통해 표준점수 1이상인 값과 원점수 2이상인 값을 가진 진술문을 토대로 제1유형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및 권한견제 추구형’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집권층으로부터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기소독점주의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 인식하는 유형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유형은 앞서 보았듯이 5개의 유형분류에 포함되는 50명 중 가장 많은 20명이 응답하여 조사대상자 상당수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제1유형: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및 권한견제 추구형

문항	진술문(Q statements)	표준점수 (above and below $\pm 1$ )	원점수 (above and below $\pm 2$ )
2	검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1.697	3
3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견제되어야 한다.	1.558	3
1	검찰은 청렴해야 한다.	1.160	2
13	검찰은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어린이, 노약자, 여성)보호함으로써 사회정의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1.001	-2
19	검찰은 사회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1.072	-2
17	검찰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1.412	-2
9	검찰은 범죄피해자의 회복까지 지원해야 한다.	-1.603	-3
20	검찰은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1.659	-3

## 2) 제2유형: 청렴 및 국민안전추구형

Q분석을 통해 표준점수 1이상인 값과 원점수 2이상인 값을 토대로 나타난 제2유형은 ‘청렴형 및 국민안전추구형’으로 검찰이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며 국민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보장하는 역할을 강조한 유형에 해당한다.

이는 기존 검사스폰스 사건, 그랜저 검사, 성추행 검사 등으로 검찰의 이미지가 부패하다고 인식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각종 범죄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6)</sup>

6)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에서도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국정비전 하에 안전과 통합의 사회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범죄로부터 행복한 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lt;표 5&gt; 제2유형: 청렴 및 국민안전추구형

문항	진술문(Q statements)	표준점수 (above and below $\pm 1$ )	원점수 (above and below $\pm 2$ )
1	검찰은 청렴해야 한다.	1.891	3
17	검찰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1.287	3
15	검찰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1.245	2
10	검찰은 투명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1.109	2
5	검찰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1.025	2
8	검찰은 국민에게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1.032	-2
9	검찰은 범죄피해자의 회복까지 지원해야 한다.	-1.318	-3
7	검찰은 부당한 지시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명하복방식의 조직구조는 개선해야 한다.	-1.794	-3

### 3) 제3유형: 민생안전을 통한 탈권위 추구형

Q분석을 통해 표준점수 1이상인 값과 원점수 2이상인 값을 토대로 나타난 제3유형은 ‘민생안전을 통한 탈권위 추구형’으로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친숙한 검찰의 모습으로 탈바꿈 하는 것을 강조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국민보다 우월적 존재이자 권위를 앞세우는 권력기관에서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국민을 위한 최고의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지향적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lt;표 6&gt; 제3유형: 민생안전을 통한 탈권위 추구형

문항	진술문(Q statements)	표준점수 (above and below $\pm 1$ )	원점수 (above and below $\pm 2$ )
8	검찰은 국민에게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1.707	3
17	검찰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1.281	3
3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견제되어야 한다	1.124	2
15	검찰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1.051	2
4	검찰은 어떠한 공공기관보다 법을 잘 준수해야 한다.	-1.107	-2
2	검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1.152	-2
20	검찰은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1.518	-3
19	검찰은 사회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1.578	-3

#### 4) 제4유형: 법의 공정한 집행요구형

Q분석을 통해 표준점수 1이상인 값과 원점수 2이상인 값을 토대로 나타난 제4유형은 제1유형인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및 권한견제 추구형(50명 중 20명)에 이어 가장 많은 인식(50명 중 14명)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제4유형은 ‘법의 공정한 집행 요구형’으로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아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유형이다. 검찰의 공정한 법 집행은 국민에 대한 의무이자 사명인 만큼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 또는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우리사회의 관행을 탈피하는데 있어 권력층의 눈치를 보지 말고 검찰의 공정한 법집행자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표 7> 제4유형: 법의 공정한 집행요구형

문항	진술문(Q statements)	표준점수 (above and below $\pm 1$ )	원점수 (above and below $\pm 2$ )
16	검찰은 법 집행시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2.073	3
2	검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1.283	3
1	검찰은 청렴해야 한다.	1.093	2
19	검찰은 사회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1.154	-2
20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1.243	-2
9	검찰은 범죄피해자의 회복까지 지원해야 한다.	-1.286	-2
10	검찰은 투명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1.299	-3
14	검찰은 시민사회로부터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	-1.517	-3

#### 5) 제5유형: 투명행정 실천 및 책임준수형

Q분석을 통해 표준점수 1이상인 값과 원점수 2이상인 값을 토대로 나타난 제5유형은 ‘투명행정 실천 및 책임준수형’으로 행정의 기본원칙인 투명성 확보를 통해 책임지는 검찰의 모습을 원하는 유형이다. 유리알처럼 투명한 행정은 기관의 신뢰와 직결되며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실제 전국검찰청 정보공개처리현황자료(2008년에서 2012년 10월)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처리에 대한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제기 건수가 2008년 14건, 2009년 14건, 2010년 15건, 2011년 21건, 2012년 3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공개교육건수도 2008년 37건, 2009년 47건으로 증가했다가 2010년 27건, 2011년 19건, 2012년 12건으로 점차 줄

어 들고 있다는 점은 검찰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표 8> 제5유형: 투명행정 실천 및 책임준수형

문항	진술문(Q statements)	표준점수 (above and below $\pm 1$ )	원점수 (above and below $\pm 2$ )
10	검찰은 투명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2.202	3
12	검찰은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1.572	3
20	검찰은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1.067	-2
3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견제되어야 한다.	-1.080	-3
15	검찰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1.319	-3
2	검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2.202	-3

#### 6)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인 견해

검찰의 바람직한 역할상의 5가지 인식유형을 근거로 공감도가 떨어지는 진술문으로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한 검찰의 사회적 통합기능(문항 20)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팽배한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통합의 가치 하에 검찰의 힘(power)을 실어주는 적극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청렴(문항 1)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유형이든 검찰의 바람직한 역할상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검찰내부에서 뇌물검사, 성추문 검사, 브로커 검사 등과 같은 비리검사 사건 등으로 대국민적 검찰의 신뢰가 무너진 만큼 내부스스로의 청렴이 먼저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부패가 독점성(monopoly)이 높고 재량성(discretion),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이 낮을 경우 증가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일반국민들은 검찰이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으면서,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할 수 있다.



&lt;표 9&gt; 유형간 공통점을 보이는 진술문

문항	진술문(Q statements)*	원점수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1	검찰은 청렴해야 한다.	2	3	1	2	2
20	검찰은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3	-1	-3	-2	-2

주: \*는 검찰의 바람직한 역할상으로 중립적인 값 0을 기준으로 5가지 유형 모두가 +1이상인 값을 공감하는 진술문으로, 5가지 유형 모두가 -1이하인 값을 공감도가 떨어지는 진술문으로 선정했다.

#### IV. 결론

검찰의 올바른 역할상 확립을 위한 검찰개혁의 논의는 과거 김대중 정부부터 현 박근혜 정부까지 줄기차게 진행될 만큼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주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고도의 정치적 또는 정책 판단적 성격을 지녀 주로 법률 전문가나 정치인들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경향은 검찰개혁을 통해 정책적 영향을 실제로 받는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정책적 한계점을 노정시켰다. 개혁이라는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검찰개혁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하에 국민의 입장에서 향후 검찰이 어떠한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하는지에 대해 바람직한 검찰 역할상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개인의 선호, 가치, 태도 등을 심층적으로 밝히는데 유용한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직업이나 연령이 다양하게 구성된 K대학교 사회교육원생 63명을 P표본으로 하였으며, 이들이 20개의 Q표본 진술문을 7점 Q표본 분포도상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검찰개혁과 관련된 바람직한 검찰의 역할상으로 다섯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제1유형으로는 집권층으로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기소독점주의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및 권한견제 추구형’, 제2유형으로는 검찰이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며 국민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청렴 및 국민안전 추구형’, 제3유형으로는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거듭나야 한다는 ‘민생 안전을 통한 탈권위 추구형’, 제4유형으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아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법의 공정한 집행 요구형’, 제5유형으로는 투명성 확보를 통해 책임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투명행정 실천 및 책임 준수형’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제1유형인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및 권한견제 추구형’은 그동안의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5가지 인식유형 중 조사대상자가 가장 많이 인식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정치권이나 법률전문가 집단에서 논의되는 대검중수부폐지, 특별감찰부 및 상설특검설치와 같은 기능 및 조직개편을 통한 검찰개혁방향에 대해 상당수 공감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검찰이 수행하는 대국민서비스 기능으로 법의 공정한 집행, 투명행정 및 책임준수, 국민안전추구도 역시 검찰개혁의 주요한 이슈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검찰의 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권한독점방지라는 정치적 쟁점사항으로 인해 검찰 본연의 대국민서비스 기능의 중요성이 희석되어서는 안 되며, 대국민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한 지속적 개혁이 필요함을 상기시켜준다.

한편 ‘청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인식된 5가지 유형모두가 검찰의 바람직한 역할상이라는 점에 공감함으로서 검찰 내부 스스로의 청렴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시되었던 기능 및 조직정비와 같은 하드웨어 측면의 검찰개혁안 못지않게 검찰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소양교육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요소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청렴문화가 검찰조직 내에 자연스럽게 체화될 수 있는 풍토조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 참 고 문 헌

- 김영대. (2007). 검찰혁신 스토리: 검찰형 6시그마. 「법조」. 56(1): 30-69. 법조협회.
- 김용훈. (2012). 검찰권에 대한 통제방안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현 감사원 권한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12(3): 1083-1116. 한국법정책학회.
- 김인회. (2010). 다시 사법개혁을 말한다: 견제와 분산을 위한 검찰개혁과제 재검토. 「민주법학」. 43: 365-417.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김현수·원유미. (2000). 「Q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홍규. (2008). 「Q 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커뮤니케이션북스.
- 법무부. (2012. 10). 전국 검찰청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 서보학. (2010). 검찰의 현주소와 법치주의의 위기. 「법과 사회」. 39: 83-109. 법과사회이론학회.
- 윤영철. (2012). 검찰개혁과 독립된 특별수사기관의 신설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13(1): 49-73.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정주·이선중. (2013).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인식유형과약을 통한 역할상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4): 191-218. 서울행정학회.
- 하태훈. (2009) 검찰권 통제 및 검찰제도 개혁방안. 「법과 사회」. 37: 91-112. 법과사회이론학회.
- 한상훈. (2009). 권력기관으로서의 검찰: 외국의 검찰제도와 한국검찰 개혁에 대한 시사점. 「법과 사회」. 37: 121-149. 법과사회이론학회.
- 검찰청, [http://www.spo.go.kr/spo/intro/cicm/cl\\_cm.jsp](http://www.spo.go.kr/spo/intro/cicm/cl_cm.jsp).
- 경향신문, 2011. 9.28 “불평등 수사, 검찰 불신 불러” 법무부 자체 조사서도 확인.
- 법률신문. 2012. 11. 26, 검찰, 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최하 등급.
- 시사인, 2012.10.23 검찰신뢰도, 위험수위까지 추락.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http://www.opengirok.or.kr/3246>)
- McKeown, B. F. & Thomas, D.(1988). *Q Methodology*. Newbury Park. CA: SAGE.
- Stephenson, W. (1953). *The Study of Behavio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투고일자 : 2013. 05. 09  
수정일자 : 2013. 06. 19  
게재일자 : 2013. 06. 25

국문초록

## 바람직한 검찰 역할상에 관한 연구

이정주(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경희대)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기존 정치인이나 법률 전문가에 의해 주도되어 국민적 인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에 착안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검찰 역할상으로 Q 방법론을 통해 5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1유형인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및 권한견제 추구형’은 조사대상자가 가장 많이 인식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정치권이나 법률전문가 집단에서 논의되는 대검중수부폐지, 특별감찰부 및 상설특검설치와 같은 기능 및 조직개편을 통한 검찰개혁방향에 대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검찰이 수행하는 대국민서비스 기능으로 법의 공정한 집행, 투명행정 및 책임준수, 국민안전추구도 역시 검찰개혁의 주요한 이슈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청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인식된 5가지 유형모두가 검찰의 바람직한 역할상이라는 점에 공감함으로서 검찰 내부 스스로의 청렴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검찰개혁, Q 방법론, 부패, 청렴